

우리는 디지털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,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.

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	보 도 자 료	
보 도 일 시	배포 즉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배 포 일 시	담 당 팀	AI기술전략팀
2026.09.28.(월) 15:00	담 당 자	김동희 팀장(053-230-1701) 윤지영 주임(053-230-1797)

NIA-국방부, 700만 국방 관계자가 이용하는 원스톱 국방 플랫폼 ‘장병e음’ 성과공유회 개최

- 3년간('24~'26)의 추진성과 공유 및 10월 AI 챗봇·전자지갑 탑재된 지능형 서비스 예정 -
- 국방부 최초 민간 클라우드 도입... '1CT AWARDS 2026 대상(1위)' 등 혁신성 입증 -

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원장 김형철, 이하 NIA)은 국방부와 함께 9월 28일(월)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‘장병e음’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.
- 이번 성과공유회는 3년간('24~'26)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, 10월 본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주요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장병e음은 국방부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한 장병 통합 플랫폼이다.
- 장병e음은 입대 전 병역 판정부터 복무 중, 전역 후 예비군에 이르기까지 장병의 전 생애주기를 하나로 잇는 원스톱 국방 통합 플랫폼이다.
- 서비스 대상자는 45만 국군장병뿐만 아니라 군가족, 군무원, 입영 대상자, 예비역 등 약 700만 명에 달한다. 기존에 인사·행정·복지·의료·교육 등 46개의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던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청년 장병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됐다.

- 국방 최초로 군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었고, 군경력증명서, 전역증 등 종이 기반의 증명서도 앱으로 간편하게 대체되었다.
- 군 가족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출력하지 않아도 군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.
- 장병e음은 '26년 2월 시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0만 명의 장병이(전 장병의 89%)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.
- 특히 이번 사업은 국방부 최초로 첨단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방-민간 협력 성공 사례이다.
- 네이버클라우드는 인프라 서비스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GPU(그래픽 처리 장치) 서비스를 제공했다.
- 멀티 클라우드 활용으로 비용은 줄이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연성(동적할당)*을 확보했다.
* 동적 할당: 이용량에 따라 전산 자원을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
-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장병e음 서비스는 '2025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' 장려상을 받았다. 올해는 'ICT AWARDS 2026' 앱·웹 부문에서 대상(GRAND PRIX)을 수상했다.
- NIA와 국방부는 지난 2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인사·행정 등 32개 핵심 서비스를 담은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다.
- 이후, 육·해·공과 해병대 대상 '찾아가는 군부대 간담회'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모아 서비스 완성도를 높였다.
- 10월 본 서비스에서는 ▲AI 챗봇 ▲전자지갑 기반 모바일 증명서 발급 등 14개 고도화 서비스가 추가된다. 이에 따라 총 46개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될 예정이다.

-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장병e음 서비스 추진성과 발표와 주요 기능 시연이 이어졌으며,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덕진 소장의 ‘AI Agent 시대에서의 국방분야 발전 방향’ 특별 강연을 통해 AI 시대의 국방 발전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.
- NIA 김형철 원장은 “장병e음은 장병과 군 가족들을 군 생활 전반에 걸쳐 따뜻하고 스마트하게 이어주는 가교이자 첨단 기술 기반의 국방 디지털 대전환 핵심 이정표” 라며, “10월에 오픈 예정인 본 서비스에는 장병들의 군 생활을 밀착 지원하는 ‘내 손안의 국방 AI 비서’ 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 <끝>

붙임 : 사진자료

<성과공유회>



[장병e음 성과공유회에서 국방부와 NIA 관계자가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.]